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권 은 진

2014년 8월



#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진 관 훈

권 은 진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권은진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홍 경 수



위 원

서 창 원



위 원

진 관 훈

진관훈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년 6월





# A Study on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in Jeju

Eun-Jin Kwon

(Supervised by Professor Gwan-Hun J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4.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연구

權 銀 眞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社會福祉專攻

指導教授 秦 寬 勳

본 논문은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지역사회에서 펼친 사회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실천적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주요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한림지역이며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주된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othman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이 상호 중복되고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Taylor & Roberts 모델을 적용했을 때 Rothman 모델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비슷한 유형인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적용되었다.

셋째, Weil & Gamble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모델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관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다양한 역할을 지역사회개발가, 지역사회사업가,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 등 3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개발가로서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며, 지역개발 이익분배가 지역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사업가로서는 지역 주민과 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의 가치·원리·기술을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와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을 하였으며, 개별 기관중심의 사례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하게 하였다.

주제어 : 맥그린치,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가





# 목 차

< 국문초록 >

<b>I. 서 론</b>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	3
<b>II. 이론적 배경</b> .....	5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	5
2.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	8
3.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	15
4. 선행연구 고찰 .....	21
<b>III.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b> .....	23
1.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	23
2.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의의 .....	42
<b>IV. 결 론</b> .....	56
< 참고문헌 > .....	59
<ABSTRACT> .....	62

<표 목차>

<표 1> Rothman 모델(1995) ..... 10  
<표 2> Taylor & Roberts의 5모델(1985) ..... 12  
<표 3> Weil & Gamble의 8모델(1985) ..... 13  
<표 4>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 24  
<표 5> 도내 비은행금융기관 일람표 ..... 33  
<표 6> 북제주군 관내 전염병 발생 동향 ..... 34  
<표 7> 북제주군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변천 ..... 35  
<표 8> 제주도 본당별 N.C.W.C. 보조금 (1961~1962년) ..... 37  
<표 9> 미제레오르의 경제개발 원조규모 ..... 38

<그림 목차>

[그림 1]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연구모형 ..... 4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임 맥그린치 신부(Patrick James McGlinchey)신부(이하 ‘맥그린치’로 칭함)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관점에서 고찰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 4·3사건<sup>1)</sup>과 한국전쟁<sup>2)</sup> 이후 제주도에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입도하여 지역주민들의 가난극복과 자립을 위해 구호활동에 참여하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의료, 교육, 지역개발 등 적극적인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맥그린치 신부는 빈곤의 원인과 원인제거를 위해 지역주민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파악하고, 소득·고용·교육·보건의료·시설제공 등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체계화 하였다. 자원동원과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활동대상과 방식에서도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중산간(제주도의 해발 200~600m 구릉지대)을 개발하여 축산업을 한 차원 높임으로써 제주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도시화 및 공업화,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농촌침체, 주택부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문제가 과거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중점을

---

1) 1948년 4·3사건으로 제주도는 농업·목축업·어업·나잠업·교역 등 각종 산업 부문이 정체되어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제법에서는 금지된 초토화 작전이 제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됨으로써 참혹한 민간인 희생이란 유혈사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한 물질적피해로 크게 마을 공동체의 파괴 및 소실, 공공 시설의 소각피해, 산업 부문의 피해 등이 있다(북제주군, 2006: 664~665). 160개 마을이 참화를 입고, 피해가옥 3만 5천 921동, 소 1만 7천 860마리, 말 6천 900마리, 돼지 2만 2천 989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엄청난 살림이 훼손되어 제주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었다(북제주군, 2006: 114).

2) 한국전쟁 이후 1961년까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전쟁피해로부터 산업을 복구하고 국민경제를 재건시키고자 본격적으로 노력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한국전쟁에 의해 직접적인 전쟁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복구 사업 및 경제재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두는 사회개발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sup>3)</sup>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의 쇄신과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며, 교회는 신앙의 발전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쇄신, 규율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우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가톨릭 구제회의 지원을 받아 모자보건, 아동급식, 학교급식, 근로지원사업, 극빈자 구호사업등의 양곡사업과 농로개설, 축산, 저수지 축조, 관개, 주택, 간척, 신용조합 육성등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비타민제와 기타 의약품 공급, 의료기구의 지원과 병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원조 등의 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수사목<sup>4)</sup>이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본당<sup>5)</sup>이나 교구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 운영하는 사회복지 전문수도회와 사회복지 전문 사도직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이외에 나환우 구호와 치료 및 정착촌 개설사업과 신용협동조합 운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심홍보, 1998: 306~30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그린치 신부가 선교의 목적으로 전개한 사회복지 활동 실천방법들은 제주지역 지역사회복지 성립의 기반이 되었으며, 제주의 근대적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그린치 신부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틀을 가지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맥그린치 신부가 그간 제주지역사회에서 펼친 사회복지활동을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에서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재위 1958~1963년)에 의해 시작되어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963~1978)때 종결되었다. 총 4회기로 이어졌으며, 여기에서 모두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그리고 3개의 선언과 7개의 메시지가 발표되었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214~215).

4) 특수사목이란 사제가 본당에 파견되어 신자들의 복음화와 공동체 형성과 양성을 위해 사목하지 않고, 사회의 비복음적인 환경안으로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을 직능별, 그룹별로 사목하는 것이다(심홍보, 1998: 83).

5)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단위교회로 교회의 교계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단위 교회인 교구내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다.

분석하여 그 실천적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더 보다 나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한림지역이며 주된 시간적 범위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sup>6)</sup>이다.

##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에 의한 자료수집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담은 문헌,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문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본당사, 그리고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와 출판물, 맥그린치 신부의 선교 활동에 대한 연구논문, 북제주군지, 제주도내 향토지등을 참고하였다.

문헌연구에서 배제된 연구대상자의 내적세계(관점, 생활세계, 주관성, 감정 등)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인 구술생애사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즉 주요대상자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사실내용 뿐만 아니라 내용을 조직하는 표현에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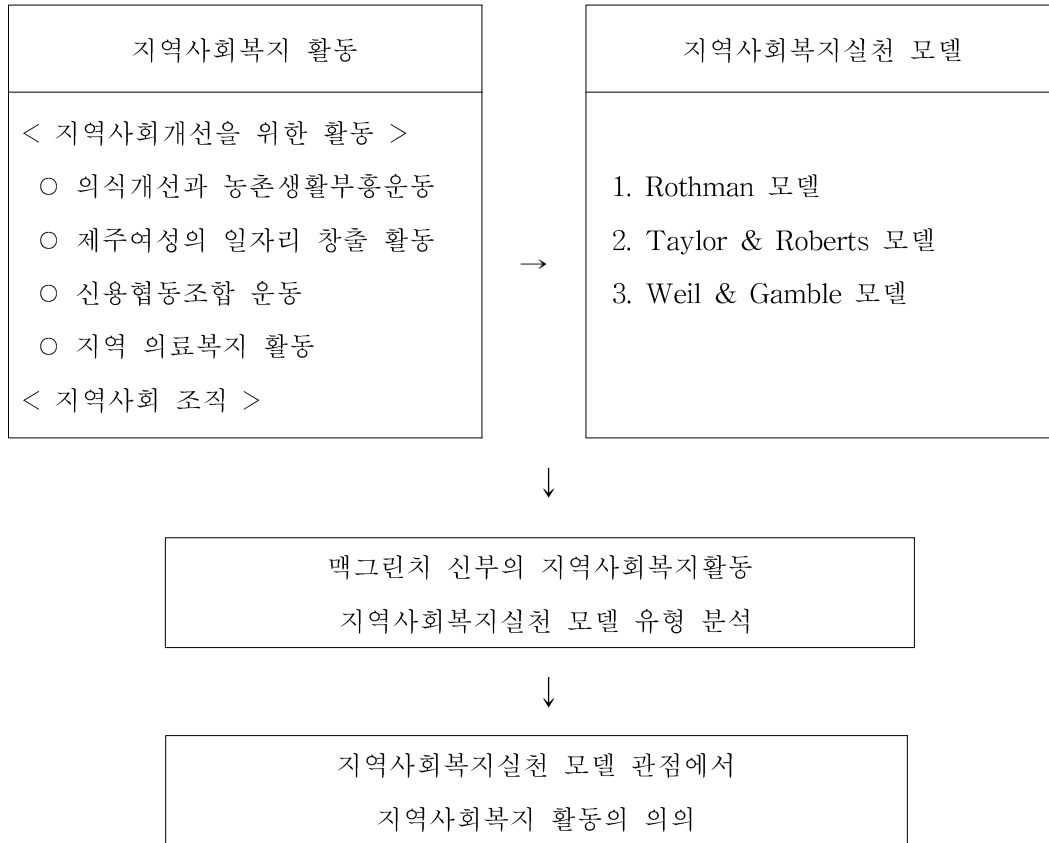
구술의 주요내용은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배경과 내용, 지역주민의 참여태도 등이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연구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인터뷰에 임했으며 연구자는 질문항목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술자가 구술형식이나 내용을 자유롭게 이끌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주요대상자는 맥그린치 신부를 비롯해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제, 제주교구 소속 사제, 지역주민들이다.

---

6)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지역사회복지 실천주체,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 지역사회복지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 형성기(1950년대~197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1980년대~1990년대 초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90년대 초반 이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류종훈, 2007: 42~50).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특성

####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시책·입법, 프로그램, 혜택 및 서비스가 포함된 기능적 체계이다. 이 개념과 더불어 지역사회는 변화될 필요가 있는 문제, 욕구, 이슈등을 내재하고 있는 환경인 동시에 공통의 신념, 가치, 규범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정한 공간이다(정무성, 1997: 23).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전문 혹은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다(최일섭·류진석, 2003: 34-35).

기술적인 실천방법을 강조하여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정무성, 1997: 24).

이상을 종합하면, 지역사회복지란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주민의 지역생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활동이다.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역사적 기원은 지역에서 자선 활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했던 19세기 후반의 자선조직협회 활동<sup>7)</sup>과 지

7)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퇴조한 반면, 민간부문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869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당시 다수 민간자선기



역의 환경, 교육,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해 변화시키려했던 인보관운동8)으로부터 비롯된다(김태성외, 2012: 263). 두 역사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 사회마다 각기 다른 전통과 사회·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특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성, 종합성·전체성, 연대성·공동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남진열 외, 2009: 46-48).

### (1) 예방성

예방성이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생활문제를 주민참여라는 구조를 통해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여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예방적 특성에는 클라이언트의 인격 파탄이나 생활 파탄의 방지라는 소극적 예방으로부터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구조의 안정·강화 등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예방까지 포함한다.

### (2) 종합성·전체성

지역사회복지에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는 종합성의 특성을,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전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급자 측면의 종합성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락·조정·협의 등의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인 운용을 통하여 종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

---

관들의 서비스 중복과 재정낭비를 막고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 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였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가정을 등록케 하고 빈민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별 가정방문과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활동의 주안점은 자원봉사자인 우애방문가들을 활용하여 빈민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격적 감화를 주는데 있었다. 이러한 자선조직협회 활동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사회사업의 개별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장인협 외, 2001: 51-52 재인용).

8) 영국 인보관 운동의 창시자인 영국 국교 목사 Barnett는 기독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사회계급간의 차이를 좁히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1884년 동부 런던 빈민지역에 토인비홀(Toynbee Hall)을 세웠다. 초기의 인보관 운동가들은 사회개혁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빈민지역에 뛰어들어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같은 인보관 활동은 미국에도 전파되어 전국의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었다(정무성, 1998: 75 재인용).

을 one-stop service, 서비스의 패키지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용자 측면의 전체성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교통, 안전, 환경 등 주민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여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반드시 전문적인 활동(professional activity)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인 민간 활동(예컨대 두레, 품앗이 등)에서부터 오늘날의 민간자선활동, 지역개발운동(새마을운동, 4H 클럽 등), 그리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내포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

### (3) 연대성·공동성

지역사회복지에서는 주민 개인의 사적 활동으로 해결이 곤란한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들의 연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하여 해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대성과 공동행동은 대외적으로 주민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상호부조 활동으로 나타난다. 주민운동은 지역사회의 생활상의 문제해결이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의 마련이나 시설의 설치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민들의 상호부조 활동은 주민 상호간의 친목활동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대인관계의 왜곡화를 시정하는 등의 공동체를 만든다.

### (4) 지역성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생활권역을 기초로 하여 전개된다. 주민의 생활권역은 ‘주민생활의 장’임과 동시에 ‘사회참여의 장’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권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까지 포함하여 지역성을 파악해야 한다.

## 2.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실천모델은 각 사회마다 서로 다른 전통과 사회·정치·경제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단일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델들은 상호 구분되는 독립적인 실천모델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중복되면서 일련의 연속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정무성, 1998: 77-78).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지역사회조직(communitry organization)으로 개념화 되어왔다. 지역사회조직은 1930년대 후반에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로부터 사회사업 실천방법의 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 당시 Lane 보고서(1939)에 따르면 지역사회조직의 일반적 목적은 사회복지 욕구와 자원 간의 보다 효과적인 조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을 사회사업 실천방법으로 체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Murray Ross이다. Ross는 지역사회조직에 있어 과정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조직의 각 개념들을 사회과학적인 용어와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사회조직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지역사회조직이 사회과학적 이론과 사회사업의 가치에 근거한 것임을 체계적으로 밝힘으로써 전문 실천방법의 기반을 강화하였다(정무성, 1997: 24 재인용).

미국의 지역사회조직 실천방법은 그동안 개발된 모델들을 바탕으로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다. 대표적으로 Jack Rothman(1995)의 개정 3모델, Taylor & Roberts(1985)의 5모델, Weil & Gamble(1995)의 8모델 등이 있다. 이 외에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실천모델, 소수민족 집단에 의한 모델 등이 있다(정무성, 1997: 29).

### 1) Rothman 모델

Rothman 모델은 1940년대와 1950년대 던햄(Arthur Dunham)의 지역사회조직 모델과 로스(Murray Ross)에 의해 제시된 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이론을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으로 체계화한 모델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접근 모델로 알려져 있다(김범수·신원우, 2006: 102 재인용).

Rothman(1995)은 지역사회, 변화과정, 전문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가정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개발 모델,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는 지역에 소속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지역사회 문제의 특성과 성취되어야 할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광범위한 시민 참여, 사고의 공유, 민주적인 의사결정, 협력적인 문제해결, 자조를 강조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다른 관심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도력의 기술을 배운다(B.세퍼·C.호레이시·G.호레이시, 2001: 160).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조력자, 조정자, 문제해결기술 훈련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둘째,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은 구체적인 사회문제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인간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사회의 주요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언급되는 복잡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요소들을 인정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기 위한 힘, 권력, 영향력을 가진 유력가와 정부직원들, 조직들을 참여시키는 것이다(B.세퍼·C.호레이시·G.호레이시, 2001: 160).

그리고 사회계획에는 정책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양자가 모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만 구분되는 특징으로는 정책적 접근이 보다 상위적인 차원-국가, 정부구조, 입법 및 행정부의 목표 설정 등과 같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정무성, 1998: 81).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억압받고 소외된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정치적 공평성의 입장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존 제도나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항의나 시위, 협상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정무성, 1998: 81). 이 모델에서 전문가는 조직가, 활동가, 옹호자, 협상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Rothman의 세가지 모델은 실천변수에 따른 이념적 분류로 실제 지역사회복

지실천의 개입에서 상호 중복되고 혼합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박태영, 2007: 74-75).

<표 1> Rothman 모델(1995)

구 분	지역사회개발모델	사회계획/정책 모델	사회행동 모델
목 표	과정중심 목표	과업목표	과정,과업(결과중시)
지역사회의 문제상황에 대한 가정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이 결여	수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 특권과 권력의 위계존재 (빈부격차)
기본적 변화 전략	함께 모여 의논하자	사실(진상)을 파악해서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억압자를 물리치고 체제 변혁위해 조직(규합) 하자
변화전술과 기법	합의, 토의강조	사실조사(발견), 분석상의 기술 중요	갈등이나 대결의 전술 강조
사회복지사의 역할	조력자,격려자, 촉매자	지역사회 진단, 사실 발견, 정보수집, 평가, 프로그램 계획·실시	조직 활동가, 행동가 중재자, 협상가
변화의 매개체	소집단 활용	공식조직 중시, 자료수집, 자료분석	대중조직과 정치적 과정 활용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	권력자도 지역목적을 위해 공동노력	권력집단을 실천가의 후원자나 고용주로 인식	권력집단은 사회행동이 표적
수혜자의 범위 규정	전 지역사회	전 지역, 일부 특수계층	권력집단에 의해 억압받는 일부
지역사회 이해 관계나 하위 체계에 대한 가정	공동의 이해관계 및 조정 가능한 차이	실용적 접근, 이해 관계의 조정가능 또는 갈등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갈등적 이해관계, 자원의 희소성
수혜집단에 대한 인식	잠재력 있는 정상인 평균적 시민	서비스 혜택을 받는 소비자	사회제도의 희생자, 피해자
수혜집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 참여	서비스의 소비자, 고객	고용주, 사용자, 회원
임파워먼트 개념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구성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상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정보를 계획, 정책 과정에 반영	의사결정과정의 동등한 파트너, 직접적 영향력 행사

자료: 남진열 외(2005: 123 재인용)

## 2) Taylor & Roberts 모델

Taylor & Roberts는 자신들의 저서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ty Social Work(1985)”에서 지역사회사업의 모델은 실천방법의 각 변인, 전략, 의사결정 등에 있어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한이 있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Rothman의 기본 3모델을 중심으로 2모델을 새로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5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정무성, 1997: 30).

첫째,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조력, 지도력 개발, 자조, 상호부조,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연구 및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시민참여와 교육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는 주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은 지역사회복지의 모체인 인보관과 자선조직협회 운동에 근거하여 주로 공공기관, 지리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협의회 등에서 수행되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계획모델은 Rothman의 초기 사회계획모델을 인간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있어 전문가가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모델이다(류종훈, 2007: 85).

넷째, 지역사회연계 모델은 Rothman의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회사업기관의 일선 스태프나 행정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행정가들은 지역사회관계, 지지활동, 환경개선, 조직간의 관계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정무성, 1998: 83).

다섯째, 정치적 권력강화 모델은 Rothman의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의도된 시민참여에 의한 정치적 권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전문가들은 교육자, 자원개발가,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합법적으로 위임된 조직이나 자생조직으로 진전될 수 있다.

<표 2> Taylor & Roberts의 5모델(1985)

실천모델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결정권한 정도
지역사회개발	클라이언트가 7/8 결정 권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모델	후원자가 100% 결정 권한
계획모델	후원자가 7/8의 결정 권한
지역사회연계 모델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1/2의 결정 권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가 100% 결정 권한

자료: 남진열 외(2005: 126 재인용)

### 3) Weil & Gamble 모델

Weil & Gamble은 1990년대 이전까지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8가지 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The Encyclopedia of Social Work 제19판(1995)”에서 “Community Practice Model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8모델은 ①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② 기능적 지역사회조직 ③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 ④ 사회계획 ⑤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⑥ 정치·사회행동 ⑦ 연합 ⑧ 사회운동으로 구분된다.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8가지 모델을 목표/변화의 표적체계/일차적 구성원/ 관심영역/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정무성, 1998: 84).

첫째, 지리적 지역사회조직모델은 지리적 개념의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된다. 지역사회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역사회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조건들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는 조직가, 교사, 코치,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둘째, 기능적 지역사회조직모델은 지리적 의미보다 기능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을 교육시켜 자신들의 이슈에 대한 옹호활동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때 전문가는 조직가, 옹호자,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사회 사회·경제개발모델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사회주민 계층을 위해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지역사회 주민

의 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문가는 협상자, 교육자, 관리자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계획모델은 전문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자원의 배분 등이 중요하며 전문가는 조사, 욕구사정, 계획가 등의 역할을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사회 연계모델은 서비스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맞춤형서비스로 조직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문가는 계획가, 대변자, 평가자 등의 역할을 한다.

여섯째, 정치·사회행동모델은 Rothman의 지역사회행동 모델과 Taylor & Roberts의 정치적 권력강화모델과 같은 모델로 사회적 약자계층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는 옹호자, 조직가 등의 역할을 한다.

일곱번째, 연합모델은 효율적인 운동성과를 위해 조직간의 연합전선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집합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는 중재자 협상자, 대변인, 조직가 등의 역할을 한다.

여덟번째, 사회운동모델은 일반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가는 중재자, 협상자,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표 3> Weil & Gamble의 8모델(1985)

모델/구분	목 표	변화를 위한 표적체계	일차적 지지집단	관심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리적 지역 사회 조직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 지역계획과 외부개발에 영향과 변화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	이웃,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조직가 교사 코치 촉진자
기능적인 지역사회 조직	행위, 태도의 옹호 옹호와 변화에 초점을 둔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서비스 제공	일반대중, 정부기관	동호인	특정이슈와 대상 옹호	조직가 옹호자 집필자 정보전달자 촉진자



모델/구분	목 표	변화를 위한 표적체계	일차적 지지집단	관심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개발	지역주민 관점에 입각한 개발계획 주도, 사회경제적 투자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은행, 재단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	저소득 계층, 주변 계층, 불이익 계층	소득, 자원, 사회적자원 개발, 교육, 리더십기술 향상	협상가 추진자 교사 계획자 관리자
사회계획	선출된 기관, 서비스 계획협의 회가 행동을 하기 위한 제안	지역사회 지도자의관점 서비스지도자의 관점	선출된 공무원, 사회기관 과 기관 간의 조직	지역계획에 사회적 욕구 통합, 서비스 네트워크 조정	조사자 정보전달자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관 프로그램의 확대와 방향 수정	기관 프로그램 재정 후원자, 기관 서비스의 수혜자	기관위원회 또는 행정가, 지역사회 대표자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대변인 계획가 관리자
정치·사회 행동	정책 또는 정책 형성자의 변화에 초점을 둔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선거권자, 선출된공무원 잠재적참여자	특정 정치적 권한이 있는 시민	정치권력의 형성, 제도의 변화	옹호자 조직가 조사자 조정자
연합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다조직적인 권력기반 형성	선출된 공무원, 재단, 정부기관	특정 이슈에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사회적욕구 또는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특정 이슈	중개자 협상가 대변인
사회운동	특정 대상집단 또는 이슈에 대해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	일반대중, 정치제도	새로운 비전과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과 지도자	사회정의	옹호자 촉진자

자료: 남진열 외(2005: 133 재인용)

### 3.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 1)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 (1) 지역사회복지활동 동기

가톨릭 교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증진에 참여했다. 1992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교회를 위한 개별법의 성격으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를 제정하였다. 이 사목지침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침(제5편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한가지 사회 공동체적인 활동이므로 사회복지의 자선 활동 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복음정신이 투철한 전문가로, 동원된 자원은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선용되어야 하고, 방만한 운영의 예방과 유관단체들의 정보교환과 유기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83). 이처럼 교회가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심과 선교가 불가분의 관계로 다음과 같이 서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교회는 박애이념, 즉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으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kerygma-martyria), 성사 거행(leitourgia), 그리고 사랑의 섬김(diakonia)이라는 교회의 삼중 임무로 드러납니다. 이 임무들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가)”이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정체성인 고유성을 드러내며 온 교회에 사랑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둘째, 교회는 사회교리에 따라 이웃사랑과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고 실천원리를 제시한다.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문헌을 통해 신자들에게 제시되는 가르침이다. 그 원천은 성서, 교회의 교부들과 대 신학자들의 가르

침, 교도권과 특히 최근 교황들의 교도권에 두고 있는 교의적 방향 설정들과 활동기준의 총체이다(유영준, 2012: 41 재인용).

사회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연대성·보조성·공동선·재화의 보편적 목적 원리를 제시하며 지역사회복지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 조직체의 활동이나 신자들은 교회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교회는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간접선교의 수단으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면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인간애의 사회적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회로서 복음 선교를 위한 첫째 방법은 신자들의 진정한 생활의 표양이다. 끊을 수 없는 하느님과 친교로 봉사하고 동시에 무한한 열성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생활의 표양은 복음 선교의 첫째 수단이라고 인정한다(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543 재인용).”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선교의 부차적 활동으로 여기거나, 자기팽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경우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은 오늘날 개종 권유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회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언임을 압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 (2)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원리

종교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종교가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는 이타적 성격을 띠며,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교리는 교회가 자신의 종교적 가치와 이상, 그리고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축적시켜온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 사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교회의 사회론이다(노길명, 1999: 251). 시대상황에 따라 주제와 강조점에 차이를 지니고 있으나 인간 존엄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sup>9)</sup>

### ① 인간 존엄성의 원리

교회가 인간 존엄성을 기본원리로 제시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회질서와 창조질서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부들은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회제도의 근원도 주체도 목적도 인간이며 또한 인간이어야 한다(사목현장, 25항).”, “실제로, 인권은 인간 각자가 지닌 존엄성에 뿌리 내리고 있다. 인간 생명에 내재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이 존엄성은 무엇보다도 이성으로 파악되고 이해된다(간추린 사회교리, 153항).”

이 원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재능, 인종, 성(性), 나이, 경제적 지위 등과 무관한 대상자 선택의 기준과 연결된다.

### ②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은 모든 인간이 한 인류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기에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 모든 사람의 권리와 발전을 증진시킬 상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부들은 “개인의 전체적 발전 노력은 인류 전체의 공동발전 노력에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민족들의 발전, 43항).” 라고 강조한다.

이 원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과 연결되며, 사회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권복순, 2003: 414).

---

9) 사회교리 문헌의 출처는 매번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구 다음에 문헌명과 항목 번호를 표시하였다.

### ③ 보조성의 원리

교회는 모든 책임과 결정이 지역 공동체들과 제도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의 사회구성체에 의한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소규모의 사회 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리를 가르친다.

따라서 교부들은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공동체에게 맡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처럼,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에 맡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186항; 사십주년, 49항).”라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 개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과 개인적 차원의 선별적 원칙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함이 이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권복순, 2003: 415).

### ④ 공동선의 원리

사회교리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은 공동선의 원리와 관계를 맺어야 완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일치, 평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본적이고 또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미에서, 공동선이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간추린 사회교리, 164항).”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공동선은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목표로 하며, 개인의 권리는 항상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맥락에서 판단한다.

이 원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구성원의 계발을 가능하게 하고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측면과 인간 본성안에 있는 반사회적 충동을 순치시켜 타인의 권리와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노길명, 1999: 263~264).

## ⑤ 재화의 보편적 목적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기본 생활을 영위할 때 재화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풍부히 돌아가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71항).”고 강조한다.

이 원리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자원분배의 원칙과 연결되며, 물질적·비물질적인 모든 재화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2) 한국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

한국에 들어온지 230년<sup>10)</sup>동안 가톨릭 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선, 사회사업, 사회복지 단계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해왔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혹은 공공부문과 긴밀한 협조 아래 사회복지의 영역을 개척해왔다(최창무, 1995: 75).

선교초기에는 경제적 궁핍과 종교적 박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선·시혜적 봉사를 해왔다. 당시 교회는 공개적으로 신앙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우촌을 이루어 공동체 차원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정교분리 정책, 민족의식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계몽과 교육사업에 집중했다. 이 시기 가톨릭적 인간관과 세계관의 보급은 전통사회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한편 사회개발에 필요한 각종의 근대적 가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근대사회의 전개에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노길명, 1984: 209).

한국전쟁 시기에는 난민들을 대상으로 구호사업을 펼쳤다. 전쟁의 비참함과 궁핍은 외국교회의 구호사업이 한국교회조직을 통해 수많은 활동과 구호사업을 전

10) 1784년 이승훈이 이벽의 권고로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에 돌아온 후 조선에서는 종교로서 천주교의 전래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 천주교가 전래되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공식적으로 복음 선포와 전례행위가 시작된 것은 1899년이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1: 39).

개도록 하였고, 수용시설들과 의료시설들이 교회의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휴전에서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수많은 피난민, 고아, 전쟁미망인, 상이군인들의 정착·자활사업이 중요해지면서 토지 개간사업, 주택 건설 사업,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원조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자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외생적 변수들에 의하여 발전하였기 때문에 자립의 토대가 빈약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평신도들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전쟁 복구나 긴급구호의 성격을 떠나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시민사회의 구축과 성숙에까지 넓히는데 기여하였다(박문수, 2005: 159-160).

1960년대는 가톨릭 구제회의 지원속에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무상구호에서 좀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역사회개발사업들을 지원하는 특정 자활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으로 지원방식이 변화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외국 원조단체의 활동과 자산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성회<sup>11)</sup>가 이어 받았으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사회복지 영역도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부터 부랑인 보호사업 실시와 더불어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선두로 상담소, 단주, 단도박 모임, 출소자 모임, 나눔의 전화 등 전문성을 띠게 되었다. 아울러 근로자 복지의 활성화와 청소년복지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의 인성회를 사회복지위원회로 개칭하고 사회복지를 전담하였다. 각 교구마다 사회복지회(국 또는 위원회)가 설립되고 교구 내의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계획, 조정, 지원을 했다. 각 본당 사목협의회 사회복지 분과와 사회복지전문 사도직 단체인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전국적인 모금활동이 전개되어 현재까지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sup>12)</sup>까지 공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실질적인

11)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과 병행되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소외되는 농민, 노동자, 도시빈민은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회복지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전국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 1975년 주교단 산하에 '인성회(仁成會)'라는 명칭의 공식 기구를 최초로 설치하였다(노길명, 2010: 200).

12) 1993년부터 해외 원조는 한국 교회의 공식 해외 원조 실무를 담당하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로마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를 통하여

자립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톨릭 영성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운영과 재정집행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동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구와 수도회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신자들의 참여와 지역사회복지 욕구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가톨릭 교회의 지역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근대화 모델이 내생적 지역개발<sup>13)</sup>을 위한 방안모색으로 지역개발 관점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개발은 지역의 성장과 분배, 그리고 복지까지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후진국이나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하였다(양영철, 1990).

이어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농촌부흥운동과 이시들 농촌산업개발협회 등으로 인한 신창·한림 지역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1).

다음으로 아일랜드에서 창설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한국선교 고찰을 통해 한국과 아일랜드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있다. 선교사들이 인식하는 한국과 아일랜드의 유사성은 사회사업과 문화적 이해로 선교활동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회사업을 통한 가난의 극복으로 제주도의 '이시들 사업'을 들고 있다(최진일, 2003).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 한림지역에 부임하고 난후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펼쳤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명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의 관점에서 올바른 교회의 역할을

---

아시아 외 지역에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하였고, 아시아 지역개발사업은 아시아 인간발전협력체를 통하여 지원하였다(박문수, 2006: 360).

13) 개발의 주체가 내생세력(지방정부, 지역기업과 지역주민등)이며 개발이익의 방향은 지역으로 귀속되고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확산적 또는 비선별적이다. 이상적인 지역개발 형태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발전 기본전략이다(양영철, 2005: 121).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양창조, 2011).

이와 함께 제주도의 한 마을(제주도 신창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천주교 성장과 선교전략의 특징이 마을 공동체에 미친 영향으로 천주교의 선교활동이 한국전쟁기 구민전략과 지역복지전략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계몽, 주민화합활동, 유아교육 기회 확대, 교회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염미경·김규리, 2006).

최근에는 맥그린치 신부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특정 종교를 넘어 시행한 사회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시돌 중심의 한림지역을 저개발지역이 지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제2, 제3의 맥그린치를 탄생시키고, 제2의 한림지역발전의 중흥기를 모색하고 있다(양영철, 2013).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펼친 사회사업 내용과 방법들을 선교적, 지역개발, 사회문화적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맥그린치 신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 Ⅲ.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 1.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맥그린치 신부는 1928년 남 아일랜드의 도네골 레터켄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가 미친데다가 영국이 아일랜드의 축산물 수입을 막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박재형, 2006: 43).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성 유난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다. 1945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35km 떨어진 성 골롬반 신학대학<sup>14)</sup> 신학과에 입학하였다. 7년간의 과정을 마친 후 KYNE(케니) 주교의 집전으로 사제서품을 받았다.

1952년 6월 한국 부임을 받고 1953년 4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후 1954년 4월 제주도 한림성당에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부임할 당시 제주 지역사회는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이후 수만명의 피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고, 큰 흉년<sup>15)</sup>이 있었다. 절망사태는 굶어죽는 사람들과 문전걸식인들을 급증하게 했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또한 한꺼번에 몰려든 피난민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제주 공동사회의 혼란과 미풍양속의 변질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했다.

14)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Missionary Society of St. Columban)는 아일랜드의 에드워드 갈빈(Edward Galvin) 신부와 존 블로윅(John Blowick) 신부가 창설한 선교단체이다. 본래 중국 선교를 목표로 하였으나 포교성성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 선교를 맡게 되었다. 갈빈 신부는 본래 미국 뉴욕 교구 브룩클린 지구에서 사목하던 선교사였으나 1912년부터 중국에 파견되어 활동하면서 그곳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1916년 아일랜드로 돌아온 후 메이누스의 성 페트릭 대학교수로 있던 존 블로윅 신부와 함께 골롬반 선교회를 창설하였다. 처음 회원들이 진출한 지역은 중국에 국한되었으나, 이후 1929년 필리핀으로 선교지역을 확대하고, 1933년 한국, 1936년 미얀마, 1948년 일본, 1951년 페루, 1952년에는 칠레의 피지, 1979년 파키스탄과 대만, 1980년 바나우트, 1985년 브라질, 1986년 벨리즈와 자메이카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골롬반회는 현재 아프리카를 제외한 5대륙 14개국(한국,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피지, 아일랜드, 칠레, 페루)에서 활동하고 있다(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columban.or.kr/>).

15) 1950년대 제주도의 산업은 거의 농업에 의존하였고, 그나마 영농구조 자체가 식량 자급을 위한 잡곡생산 위주의 영세농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1952년, 1953년, 1955년, 1957년, 1958년에 잇달아 흉년이 찾아들었고, 1957년은 40년만의 대흉년이였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239).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했던 시기에 맥그린치 신부는 가톨릭 원조단체에 의해 지원되는 구호물자 지급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개선 활동과 지역사회 조직활동을 시작하였다.

지역사회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의식개선과 농촌생활부흥운동, 제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활동, 신용협동조합 운동, 지역 의료복지 활동을 하였다. 의식개선과 농촌생활부흥운동으로 4-H클럽 조직과 가축은행 설립 및 성 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을 개설하였다. 농업 전문가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통해 농촌의 영농환경 변화를 제공하였으며, 제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조강습소를 개설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림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저축의욕을 강화하였고,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여 지역주민에게 현대적 의료환경과 진료를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조직활동으로는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sup>16)</sup>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척농가·주축단지·양잠단지·양돈협업농가 조성등 농촌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표 4>는 연도별(1950년대~1970년)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구분	활동명	연도	세부 활동 내용
1	4H 클럽 조직 육성 및 가축은행 창설	1957. 3.	청소년 이농(離農), 이향(離鄉) 방지대책과 터전을 마련하고 농촌개발을 향한 기초기반 조성
2	직조(수직)물 강습소 개설	1959. 3.	주부 또는 소녀들에게 기술을 습득케 함. 수직 공장에서 32명의 소녀들이 공장을 운영하며, 양모사를 가지고 가정주부들이(500명) 가정에서 웨-터, 모자, 장갑등 수공으로 짜내어 서울 반도조선아케이트, 한림수직사 직매장에서 판매

16) 2011년 맥그린치 신부는 성이시돌 농촌사업개발협회 이사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 현재 성 이시돌 목장내 사제관에서 지내고 있으며,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영성에 따라 자신의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 제주지역에서 복음 선포자로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구분	활동명	연도	세부 활동 내용
3	성 이시돌 증양실습 목장 개설	1961.11.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에 성 이시돌 증양실 습목장을 개설하여 목야지 개량, 양돈, 비육우 면양등 다양한 사양관리기초와 수집종의 농기 류를 비치하여 기술을 습득케 하고 중, 소규모 의 목장으로 인력배치
4	신용협동조합 설립	1962. 5.	전국에서 7번째로 한림신용협동조합 설립
5	성 이시돌 농촌산업 개발협회 설립	1962.10.	비영리재단으로 농촌산업의 효율적 관리
6	개척농가 조성	1963. 3	미정부로부터 PL-480 제2관 사료용 옥수수 도입 승인 취득과 동시에 축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척농가조성사업을 착수하 여 1976년 12월 7개지구 개척농가에 98세대를 입주시켜 양돈, 낙농, 양계등을 입식, 사육함
7	배합사료 공장	1964. 4	이시돌사료공장을 가동케 하여 농민대상으로 염가 공급
8	축산기술 지도요원 파견 요청	1968~ 1976	새로운 축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호주, 뉴 질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축산기술지도요원 파견을 요청하여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에 기술 지도
9	제주도 일원에 단지 조성	1969. 9.	제주도 축산행정당국과 제휴하여 개척단지조 성에 따른 기술교육 지원 및 조성자금 지원 (주축단지 40세대, 양잠단지 90세대 정착)
10	성 이시돌 의원	1970. 4	농촌지역에 성 이시돌의원을 개원하여 극빈 환자 무료 진료 실시
11	양돈 협업농가 조성	1973. 3.	200세대에 기술지원, 시설지원, 사료지원, 종돈분양

자료 : 한림읍(1999: 313-319 자료 재구성)

## 1)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 (1) 의식개선과 농촌생활부흥운동

맥그린치 신부는 선교활동과 함께 지역주민을 개별로 접촉하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가정방문은 지역사회 문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문제예방과 해결방안을 위해 사회자원의 유무나 활용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인터뷰는 가정방문을 실시한 의미를 잘 말해준다.

지역사람들에게 구호물자 나누어 줄 때 리사무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 받아 집집마다 돌아 다녔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인지, 허위로 명단에 올라간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한데 누락된 사람은 없는지 알기 위해서였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3.12.8).

맥그린치 신부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내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생필품 지급등의 구호활동 이외에도 축산방법을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950년대 제주도는 농업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부업으로 돼지를 농가에서도 1~2두를 사육하여 농사용 구비의 생산과 혼례와 제수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한림읍, 1999: 303). 각 가정마다 인분과 구정물로 돼지를 키우는 풍습은 사람의 기생충이 인분을 먹는 돼지로 옮겨가서 결국 사람에게 다시 옮기는 숙주역할을 돼지가 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 없는 낭충이라는 풍토병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가 지역주민들에게 돼지사육 방법과 위생상태를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과 새로운 축산방법을 권유하는 모습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돼지를 그런 식으로 기르면 안 된다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무려 5년동안 틈틈이 성당을 지어가며 건의를 했지만 모두들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돼지를 길러왔는데 외국 사람이 왜 참견하느냐며, 신부가 아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지요(성골롬반 외방선교회, 2012: 4~5).

당시 지역주민들은 외부인을 경계하거나 인간관계에 있어 소극적이었다. 조상들이 못한 일이니까 우리도 못한다, 일본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박재형, 206: 96).

새롭게 개선하려는 의지보다 현상을 유지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을 답습하려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영농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을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수용하였음을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다.

내가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정신, 그 태도가 역시 그 일본 옛날 [한국] 역사 [에서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 [도 그렇고] 자꾸 남의 나라들 [을] 강탈하고 또 짓밟았는데 그 [한국인들의] 정신, 태도 그 좌절감과 실망적인 그런 자신감 없 [는 모습 이] 고 그러한 태도 보니까...그 대신에 우리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도 그때 그랬고, 교황님도 자꾸 강조하지만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로 멸시 당해서는 안된다. 그 권한, 인권, 요한 바오로 2세가 강조했다(최진일, 2003: 123).

언젠가 젊은 청년이 사제관에 들러 형님을 찾으러 제주도까지 왔다고 하면서 옷이라도 좀 줄수 없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던 군복이랑 돈도 조금 줬죠.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본당에 가서도 같은 스토리로 해서 신부들도 많이 속이고, 돈도 훔쳐가고 그랬죠. 그때 어렵게 살았던 일반 사람들은 은인한테 도움 받아도 그냥 [당연히] 받을 꺼 받는거라 생각했죠. 오히려 도움 준 사람을, 특히 외국사람이니까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바보같이 생각하죠. 바보라고. 자기가 영리하고 말 잘하니까 외국사람한테 꺼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죠.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1957년 3월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의식개선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한림성당에 나오는 25명의 학생들을 설득하여 4H클럽을 조직하였다.

4-H클럽은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에게 발전적인 농사 방법을 지적으로 훈련시

키는 모임(societies)이다. ‘실천을 통하여 배운다(learn by doing)’는 것이 이 조직의 정신이며, 그룹활동에 강조점을 두면서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집단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경기도 수원등 다른 지역의 4H클럽이나 축산기술원을 찾아가 양돈과 양계, 채소 기르는 법을 배우고 교재를 얻어다 회원들과 함께 연구하였다. 그리고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작은 샘’(일명 정물)이라는 곳에 있던 버려진 군인 막사를 이용하여 돼지 우리를 만들었다. 회원들과 함께 닭·칠면조·토끼 등을 사육해오다가 개량된 돼지를 구입 입식시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집단 농장, 즉, “가축 은행”<sup>17)</sup>을 설립하였다. 축산개량사업으로 공동축사를 건립하여 위생적인 가축사양 관리를 증진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성 이시돌 중앙 실습목장’을 개설하고, 일본으로부터 면양을 들여와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목장 안에는 ‘농업훈련센터’(성 이시돌 농업 기술 연수원)를 설립하여 연수생들이 양돈·면양·비육우 등의 사육방법, 목야지 조성법, 목초 건조법, 사일레지 처리법과 가공법, 트랙터 운전과 정비법 등 농업 전문 지식들을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하였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617). 영농개선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농기계화로 선진농법을 전수하였다.

위와 같이 적극적인 농촌생활부흥운동을 위해 맥그린치 신부는 고향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비공식 자원과 미국 가톨릭 구제회와 독일 원조단체인 미제레오르 등의 민간재원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농촌생활부흥운동에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하였다.

미안하지만 돼지 살돈 필요하다고 편지 보내면, 코리아에 선교하러 갔는데 미친사람 되버렸다고. 돼지 키우겠다니 무슨 소리냐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 모금해야죠. 그 대신에 그냥 돈 주라 주라고 무작정 모금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어서 보여줬어요(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3.12.8).

17) 축산농가에 가축을 지원하여 일정기간 사육후 새끼로 되갚게 하고, 다른 농가에 분양하여 소득 증대를 시키는 형태의 사업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내버려지고마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각종 은행에서는 무이자로 가축을 대부해주고 있다. 차용자는 자기들이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같은 종류로 갚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언제라도 깨끗하게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207).

맥그린치 신부는 빈곤을 단지 경제적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고, 지역주민의 정신적·지적·문화적 각 방면의 개선에 의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사회 교육적인 집단활동을 활용하려고 했다. 특히 청소년, 지역주민을 집단 성원으로 하여 토론, 참여, 합의, 집단과제의 개발 및 실행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다. 4-H클럽 활동과정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집단 구성원들이 대처하고자 하는 과제를 원조하여 가능하게 하였고, 지역주민들을 집단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4-H클럽 활동은 집단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집단지도 활동은 구성원의 재활이나 교육, 사회화, 성장을 돕는 의도적인 집단적 경험과 목표 지향적 활동을 통해 의미를 갖는다.

한편, 맥그린치 신부가 지역사회 개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성 콜롬반 외방선교회가 창설 때부터 강조한 선교원칙에 있다. “서민들과 함께 있어라”라는 민중 중심적 사목 활동 원칙은 선교사들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인식이 선교 차원뿐만 아니라 현실적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활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최진일, 2003: 36 재인용). 이것은 흑산도에서 조선소 건설과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한 설요한(John Russell) 신부<sup>18)</sup>에 관한 인터뷰와 맥그린치 신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8) 설요한(John Russell) 신부는 1964년부터 광주, 제주, 서울교구에서 사목하였고, 광주 흑산도 본당 사목시설 전기를 처음으로 끌어 공급하였고, 낚시 배를 만들어 어부들에게 선물하여 생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7년 2월6일 아일랜드 콜롬반 묘지에 안장됨(성 콜롬반 외방선교회 홈페이지 <http://www.columban.or.kr/>).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수도회가 아니라 선교회로서 그 지역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정의로써 하는 것이면 자기가 [선교사]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300년동안 우리 아일랜드도 받은 고통 있어서 가난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흑산도에는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낚시인데 선배 신부님들이 큰 배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1960년대 흑산도에서 필요한 신부님이 미8군 등 부대로부터 지원 받아 발전소 시작했고, 조선소 건설 시작하셨어요. 그 후 신용협동조합도 설립했어요. 지역주민들은 성당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일 해주니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생겨서 좋아했어요(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전○○ 신부 인터뷰, 2014.5.15).

전쟁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자리가 없었고, 배고픈 사람 많이 있었어요. 나는 농촌에 발령되어 농민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농민을 중심으로 사업을 했죠. 골롬반회에서는 주로 직접 선교하기 위해서 본당 세웠죠. 본부로부터 발령받으면 그 지역에 가서 현장 보면서 필요성에 따라 그곳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발령받으면 노동자들 돕기 위해서 일을 했고, 광주와 목포에서는 장애자들 돕기 위해 여러가지 일들 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있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위와 같이 선교사들이 전개한 지역사회복지 활동들은 ‘가난’과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환경속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획득하며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부임지 변경에 따라 원조단체에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후임으로 발령받은 선교사의 선교관점 차이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여 추진해오던 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지지적 관계, 재평가가 제공되지 못하였던 점들은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과 차이가 있다.

## (2) 제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활동

당시 제주지역 주민들은 가난으로 먹고 살 길이 없어 전국 각지로 돈을 벌러 떠나기도 했는데, 부산에서 일하던 마을여성이 물탱크에 빠져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지역여성들이 실업문제로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맥그린치 신부는 양털을 이용한 수직물 사업을 시작하였고, 1959년 3월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 도움으로 “직조 강습소”(한림 수직사의 전신)를 개설하였다.

당시 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는 1955년 광주에 진출한 뒤 목포와 춘천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수녀회에 직조 전문가인 아일랜드 수녀를 요청하였고, 이 수녀들은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좋은 모직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림지역 여성들은 한림수직에 취업할 수 있게 했고, 주부들은 가내부업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또한 고급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략으로 스웨터 등을 제작하여 서울 조선반도호텔, 제주 칼호텔에서 운영, 판매하였다(한림읍, 1999: 318). 전성기에는 2,800마리의 양에서 양털을 생산하면서 약 1,300여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양영철, 2013: 40) 경제적인 수준을 향상시켰다.

직조 강습소를 통한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 활동에는 고향 가족들로부터 물레등 물품 및 현금지원이 있었고, 독일 원조단체인 미체레오르로부터 양(羊) 구입비와 양모 직조공장 건립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았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은 원조단체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시방편이 아닌 체계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잘 말해준다.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자전거 휠로 실 뽑는 기계 만들어서 소규모로 한림수직 사업 시작하고 있었는데,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체레오르에 도움 요청했죠.

미체레오르와 같은 단체는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자체부담금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아무 조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돈

절대로 안주죠. 홍콩에 살고 있던 대표신부님이 사업 확인하기 위해 한림성당 강당에서 일하는 거 보고 갔죠. 그 다음 전문가들과 미제레오르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해서 오케이 했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당시 성 글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여성을 억압의 대상, 소외의 대상으로 보았다. 농촌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 자수, 미용등을 가르치는 전문기술 학교를 개설하는(최진일, 2003: 125) 활동도 하였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이 여성들의 교육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식의 대안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직조 강습소”(한림 수직사의 전신) 개설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하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 (3)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운동 전개

제주도내 비은행금융기관<sup>19)</sup>은 1950년대말 또는 1960년대 초부터 영업소 개설 및 조합이 결성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 업무체제가 정비되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소득수준 향상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고도화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대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 제주 한림지역에는 제대로 된 금융기관이 없었고, 지역주민들은 한달에 이자를 5~6%를 내야하는 사채를 얻어 쓰고 있었으며 그 중에는 돈을 되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은 소액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상부상조를 통한 자조 자립과 신뢰의 풍토조성이 미비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맥그린치 신부는 주민들에게 신용협동조합 운동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sup>20)</sup>은 종교나 직장, 지역 등 상호유대를 가진

19) 비은행금융기관이란 중앙은행과 일반사업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국의 은행금융기관 외곽에서 일반사업은행의 행위법인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사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각종의 금융중개기관을 총괄하는 개념이다(제주상공회의소, 2000: 364).

20) 1960년 한국정부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할 당시에는 미국의 ‘크레디트 유니온’(Credit Union)식의 신용조합이 순 민간 단체인 ‘협동교육연구원’(Comparative Education Institute)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부산에서 활동하던 메리놀 수녀회의 매리 가브리엘라 수녀와 장대익 신부였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208).

개인 또는 단체간의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과 조합원간 끈끈한 연대를 강점으로 자금을 조성·운영하는 비영리 금융운동이다. 1850년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에 조합이 창설된 후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었다.

초기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용협동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출자를 하지 않으면 남들의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며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는 당시 교도봉사회의 지도와 협조를 얻었고 젊은 신자들을 설득하여 신용협동조합 강습회에 보내어 신용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식을 배워 오도록 하였다. 결국 1962년 5월, 전국에서 일곱 번째이며 도내 최초로 “한림신용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내 신용협동기구에는 한림신용협동조합 창립 이후 28개의 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그리고 농협단위조합과 어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호금융이 있었다. 이들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법률 2338호)이 시행되어 출자와 대출한도, 이자율, 예탁금, 상환준비금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적 보장을 받았다(심홍보, 1998: 100).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지역주민의 저축 의욕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표 5> 도내 비은행금융기관 일람표

비은행금융기관명	점포수	비은행금융기관명	점포수
<b>생명보험회사</b>	26	<b>상호신용금고</b>	4
대한생명	3	제주금고	1
동방생명	8	제은금고	1
홍국생명	5	한국금고	1
제일생명	1	삼일금고	1
동해생명	2	<b>신용협동기구</b>	344
대학교육보험	7	신용협동조합	29
<b>신용보증기금</b>	1	마을금고	292
<b>신탁계정</b>	1	농협상호금융	19
		수협상호금융	4

주: 1979년 기준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2000: 365 재인용)

#### (4) 지역 의료복지활동

당시 제주도의 해녀들은 잠수할 때 수압으로 인한 심장계통의 질환과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병<sup>21)</sup> 등이 일반화되어 있었다(한림읍, 1999: 334). 지역적으로도 비가 많이 내려 습도가 높아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기생충병에 의한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이 사실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제주 사람들 변소안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 눈과 입, 팔들이 빠뜩어져 있는 모습을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백그린치신부 인터뷰, 2013.12.8).

당시 북제주군 보건소에서는 만성병인 결핵, 성병, 한센병, 기생충병 퇴치 등에 대해 해당업소 종사자 및 주민대상으로 정기검진, 환자발견사업, 등록자 치료사업에 주력하고 있었다. 연도별(1960년대~1970년)로 북제주군 관내 전염병 발생 동향은 <표 6>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 주민들에게 가장 큰 병은 결핵으로 죽음의 공포 대상이었다. 실제로 전염병 환자가 434명 발생해 62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가 61명이었다. 한림읍 결핵환자 158명 중 18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애월명 82명 중 14명, 한경면 59명중 9명, 조천면 45명 중 8명, 구좌면 57명중 1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61명은 전년 32명에 비해 갑절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다(북제주군지<상>, 2006: 1196).

<표 6> 북제주군 관내 전염병 발생 동향

연도	유행성뇌염 (사망)	홍역	결핵	성병
1961	34(12)	535(3)	98	71
1963	1	-	-	-

21) 스폰지옷이라고도 하는 합성고무잠수복이 일본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일이며 제주도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고무잠수복의 착용이후부터는 장시간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작업중 배설물처리문제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수가 많아 작업후에는 해녀들이 거의 탈진상태에 빠진다(한림읍, 1999: 334).

연도	유행성뇌염 (사망)	홍역	결핵	성병
1964	2(1)	1	111(7)	-
1967	8(2)	-	225(9)	141
1968	2	-	264(42)	4
1969	3(2)	-	179(37)	2
1970	10(1)	5	282(61)	87

자료: 북제주군지<상>(2006: 1192 재정리)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969년 관내 의료인 분포를 보면 의원 10개소, 한의원 2개소, 조산원 1개소, 보건소 2개소에 불과하였고, 병원이 대부분 제주시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접근이 쉽지 않았다.

<표 7> 북제주군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변천

연도	의원 (의사)	치과 (치과의사)	한의원 (한의사)	조산원 (간호사)	보건소 (의사)	보건지소 (공보의)
1961	1(1)	1(1)	1/(1)	1/(1)	1/(1)	공의진료소
1962	4(한지3)	1	0	1/(1)	1	5(5)
1964	7(한지2)	0	2(한지1)	0	2	2
1965	9(한지2)	0	2(한지1)	0	2	2
1966	7(한지2)	0	2(한지1)	0	2	2
1969	10	0	2	1	2	
1970	9	1	0	1	2	3

자료: 북제주군지<상>(2006: 1192)

1970년 맥그린치 신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현대적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극빈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활동을 위해 ‘성이시들의원’을 개원하였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 위원회, 2001: 627-630).

맥그린치 신부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와 연락·조정을 도모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다. 처음에는 30%의 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70%의 환자에게는 돈을 받는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가난한 환자들이 많아 60%가 무료 환자들이고 40%만이 진료비를 내었다. 병원 운영비는 골롬반회에서 오는 지원금만으로는 약값과 병원 운영비를 댈 수가 없게 되어, 이시돌목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였다.

성 이시돌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던 한림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 환자들이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농촌지역 의료복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2) 지역사회 조직

1962년 10월 맥그린치 신부는 농촌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 이시돌’<sup>22)</sup>을 주부로 하는 비영리재단인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였다. 4H클럽과 가축은행, 직조강습소, 이시돌목장 등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간의 보다 효과적인 조정에 목적이 있었다.

실제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첫째, 외국정부와 원조단체<sup>23)</sup>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호활동과 지역사회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원조단체로 가톨릭 구제회 (C.R.S.)<sup>24)</sup>는 1950년대부터 공여된 미국 정부의 영

22) 성 이시돌은 에스파냐 마드리드 근교에서 태어나 후안 데 베르가스의 영지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의 신심은 매우 깊었고, 수 많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도 가난하였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 이시돌은 회랍어로 선물이란 뜻으로, 농부들과 시골 공동체의 수호 성인이며,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 국립 농촌 생활 위원회의 수호자이다.

23) 전시 및 전후복구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외원기관은 교육과 보건 및 지역사회개발등의 영역에서 기여하였으며, 미국식 전문사회복지사업의 실천방법과 이론들을 국내에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류종훈, 2007: 43).

24) 1917년 전국 가톨릭복지협의회는 미국 천주교회가 교육사업·사회사업·이민사업을 전개하고자 설립한 단체로, 처음에는 ‘미국 가톨릭 전쟁 평의회’라 불리었다. 1919년 공식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1922년에 ‘전국 가톨릭복지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었는데, ‘가톨릭구제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에 전쟁 포로와 난민 및 빈민을 돕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인종, 종족, 종교에 구별 없이 구호사업, 사회복지사업, 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에 가톨릭 구제회가 들어온 것은 1946년이었고, 1952년 외원법(外援法)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 단체로 보건 사회 복지부에 등록되었다(심홍보, 1998: 96).

여농산물,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수집한 의류, 주교단의 구제기금, 미국 난민 프로그램, 유럽 이민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각국 정부와 민간그룹등에서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전쟁 전후 가장 긴급한 의류, 식량, 의료품 등을 지원하였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08: 20 재인용).

1951년 가톨릭 구제회에서는 많은 구호품을 보내왔고, 당시 전국 가톨릭 복지협의회의 한국 지부장은 캐롤 주교였다. 제주도는 부산 사무소의 지원을 받았으며 <표 8>은 제주의 각 본당<sup>25)</sup>에 전국 가톨릭 복지 협의회(N.C.W.C.)에서 지원된 보조금 현황이다. 맥그린치 신부가 사목했던 한림성당에 지원된 보조금은 영세민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표 8> 제주도 본당별 N.C.W.C. 보조금 (1961~1962년)

(단위 : 파운드)

본당	보조금	본당	보조금	본당	보조금
제주	3,760	신창	2,000	모슬포	300
서귀포	3,270	<b>한림</b>	<b>2,000</b>	계	11,330

자료 :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 209)

1955년부터 미국정부 PL-480호<sup>26)</sup>에 따른 잉여 농산물 공여가 시작되면서 응급 구호에 사용되었던 양곡이 개간사업, 정착 지원사업 지원, 간척사업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최원규, 2006: 175). 이에 따라 1963년 3월 맥그린치 신부는 ‘전국 가톨릭 복지협의회’의 보증 아래 미국 정부로부터 PL-480 제2관 사료용 옥수수 도입 승인을 얻었고, 금악리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개척 농가 조성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때부터 목장과 기술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약 1,000헥타르를 농촌 주택단지조성하여 입주한 뒤 양농·낙농·양계 사업을 통해 자립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

25)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단위교회로 교회의 교계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단위 교회인 교구내에서 하나의 공동체이다.

26) 1950년대 가톨릭 구제회(C.R.S)는 주력사업으로 미공법 480호(PL 480)로 도입한 미국 잉여농산물, 주로 옥수수가루, 밀가루, 기름, 우유 가루로 모자보건, 급식, 학교급식, 근로지원사업, 극빈자 구호 등을 하였다.



한편 독일<sup>27)</sup> 원조단체인 미제레오르<sup>28)</sup>의 한국원조도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되어 경제개발사업 시기에 지원되었다. 1970년대에도 지원이 계속되어 한국 교회가 주요 선진국 교회에 신청한 개발원조 중, 사업수에 있어서 전체의 43.6%를 독일 미제레오르에 신청하였다. 신청액수의 비중은 87%이며, 실제 지원액은 1,538만 불로, 총지원액의 66.5%를 미제레오르가 점하고 있어서 단일 기구로서는 최대의 원조를 받았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18).

<표 9>은 1959년부터 맥그린치 신부가 미제레오르로부터 받은 경제개발 원조 규모이다. 원조내용은 농업훈련센터 건립, 축산과 농산물종자은행 건립, 양모직조 공장건립비, 가공기계 구입 등 각종 건물과 시설증축 사업 등이다. 따라서 미제레오르의 지원은 제주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표 9> 미제레오르의 경제개발 원조규모<sup>29)</sup>

(단위 : 독일 마르크)

원조일자	원 조 내 용	원조금액
1959.11.04	축산과 농산물종자은행 건립 비용 양(羊) 구입비와 양모직조 공장 건립 비용	7,500 75,390
1960.11.26	양모가공 공장, 양돈 수입, 퇴비 생산 시설 지원금 (이 중 10,000마르크는 대부)	23,170
1960.12.07	일본으로부터 양 구입비 지원 (1, 2차) (이 중 91,000마르크는 대부)	22,750 (1차) 191,000 (2차)
1961.03.21	한림에 농업훈련센터 건립 지원금 양모가공공장 지원금 (1, 2차) (이중 140,000마르크는 대부)	120,000 186,800 (1차) 66,500 (2차)

자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2009: 18~20 자료 재구성)

27) 1933~1945년까지 독일 국가 사회주의적 전체정치 아래에서 교회의 사회 애덕활동은 움츠러들었고, 1945년에 비로소 사회 하부구조의 재건과 더불어 가톨릭의 애덕활동들이 활발하게 되었다.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후 자국의 질병과 곤궁뿐 아니라 제3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세계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속죄와 보상의 성격을 띤 것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미제레오르(Misereor) 등과 같은 세계적인 구호사업이 전개되었다.

28) 독일 미제레오르(Misereor)는 독일의 주교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을 돕기 위해 1958년에 설립한 독일 주교회의 산하의 국제개발원조 기구로서 독일 아헨(Aachen)에 본부를 두고 있다. 활동의 목적을 복음과 그리스도교 사회론에 기초한 개발 원조를 통한 사회 정의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두고 있는데, 다른 해외 원조기관 단체들보다 늦게 개시되어 긴급구호활동보다는 의료나 교육, 자활사업 등에 더 치중하고 있다. 대부분 10만 마르크 미만의 금액으로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나환자요양원, 병원, 약국, 빈민구호식당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선사업 기관의 설립, 농어민과 도시빈민의 자립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립은 장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여겨 직업교육, 여성교육, 문맹퇴치 등에 주력하였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17).

29) 본 고에서 밝히는 미제레오르 원조규모와 내용은 초기 경제개발원조기간(1959~1963) 3년에 국한한 자료로 이 중 맥그린치 신부의 경제개발사업에 대해 원조한 내용만을 재작성 하였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2009: 18-20).

둘째, 농·축산분야의 개량 발전 도모와 농축산물의 증산장려, 사회사업과 육영사업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에서는 정부와 미 대외원조국(USOM), 그리고 가톨릭 구제회등 제3자 협정에 의하여 1963년부터 1967년까지 322만 불에 해당하는 사료곡물을 얻게 되었다. 이에따라 1963년 5월 7일 사료용 옥수수 1차분이 부산항에 하역된 것을 비롯하여 옥수수와 개량농기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옥수수는 일부를 사료로 이용하고, 일부는 되팔아 금악·오라·선흘 등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여기에 집과 축사를 지어 98명의 가난한 젊은 농부들의 정착을 돕는 개척농가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어 1964년 4월 한림에 제주내의 원활한 사료공급을 위해 하루에 3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배합사료공장’(현 이시돌 사료 공장)을 건립하였다. 생산된 사료를 염가로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사업활동을 도왔다.

성 이시돌 목장과 주변 목장의 가축이 더욱 늘어나면서 어승생 수원지에서 이시돌까지 18km나 되는 구간에 수도관을 묻고 물을 끌어다 식수와 가축용 수원을 확보하면서(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217-218) 농·축산분야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또한 1969년 4월에는 뉴질랜드에서 면양과 종돈(種豚)을 도입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제주도 축산행정당국과 제휴하여 중산간지대의 개척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자금 및 기술교육을 지원하였다(주축단지 40세대, 양잠단지 90세대).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아일랜드 등지에서 축산기술요원을 초빙하여 제주도·전라도·강원도지역의 축산농가들에게 꾸준히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617).

축산물의 증산장려를 위해 1972년 12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농가 종축개량용으로 소 958두, 다음해 3월에는 육우 종우 980두, 종돈 39두를 도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73년 3월부터 이듬해까지 양돈사업에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여 기술·시설·사료를 지원하고 종돈을 분양하여 별도로 ‘양돈협업농가’(200세대)를 조성하였다.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중심으로 시행한 사업들은 한림지역의 축산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택개선과 축사건축, 식수보급으로 생활환경

을 개선시켰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성 이시돌의원 운영비로 지급되면서 사회복지 확대등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하지만 맥그린치 신부가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해갈등도 있었다. 다음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때는 밀수신부라고 해서 국회 조사단까지 왔었지요. 조사단이 와서 모든게 밝혀졌지요(한림화·양영자·오성찬, 2002: 172).

내가 중학교 땀가 아버지가 임신부님하고 사료공장 짓는다고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집안일도 돌보지 않으면서 살았지. 아주 초창기였지. 옥수수가 많이 들어오는 과정이었고. 신부님이 옥수수를 팔아 땅도 사고 밀수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옥수수를 들여오려고 했지. 아버지가 보시기에 신부로서 그러면 안된다 자꾸 부딪치게 된거지. 아버지도 고집있었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반대했던 사람들은 신부님이 밀수한다고 고발하게 된거지. 조사결과는 뭐 땅 구입은 지역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해서 풀어졌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하며 밀고 나갔지. 그 후로 아버지는 이시돌하고는 완전 등 돌리게 된거지.

그때 신부님 옆에서 땅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돈벌고 다 갑부됐지 뭐.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지. 아버지도 신부님한테 그냥 예.예 하면서 있었으면 잘 살았을텐데 고집부려서 융통성없이 그렇게 했다고(지역주민 김○○, 여, 신자, 2014.6.27).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둘러싸고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와 상호의존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목표와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 가톨릭 사회복지의 강점은 가톨릭의 영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영성적 전통 속에는 인권에 대한 기본권과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연결된다. 이러한 전통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권 보장과 시민권의 확보,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비심판적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2010:

148).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 역시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영성과 지향에 따르는 실천이었다.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는 설립자들이 채택한 초기 선교사들의 좌우명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Perigrinari pro Christo)”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사랑을 우선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보 성인 골롬바노(Columbanus, Bobbio)가 6세기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한 일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다”(Christi simus non nostri)라고 가르치고 있다(골롬반회 한국지부, 1992: 2-3).

따라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영성을 통해 다른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선교회 내 다른 회원들과는 물론 지역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조절하며, 어느 곳이든 파견된 지역에 기여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선교정신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옥현진, 2007: 137).

맥그린치 신부 역시 이러한 영성을 바탕으로 조직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며 직접성을 보여주는 활동들을 하였다. 조직화는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의 하나로 조직의 목표와 방법은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고립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맥그린치 신부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강점을 보였으며, 협회 운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개발, 질병, 실업, 교육등 사회복지 영역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실천하는데 기반이 되어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왔다. 결국 가톨릭이 지닌 고유한 종교적 특성을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전문성을 실천한 것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반영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제주 지역주민 자체도 교육의지와 참여도가 높았으며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높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지역주민의 삶 안에 들어가서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였다. 4-H클럽을 조직하여 가축은행부터 얻은 자신감은 주거환경 개선, 축산개량, 영농개선, 일자리 기반확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지역주민들의 자조적인 개발의지를 고양시켰다.

그리고 맥그린치 신부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개선과 선진기술 전수에 힘썼으며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지역사회의 수용능력을 높였다. 특히 고향 아일랜드에서 지역농민들이 목장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켰던 축산경험을 제주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2. 임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의의

### 1)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의 적용

1950년대~1970년대 제주의 사회복지지는 외원에 의존한 구호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사회정책이나 사회사업은 외원물자의 분배업무와 고아 및 무의탁자들의 수용보호사업인 사회복지시설사업의 뒷바라지 수준이었다(강세현, 2000: 122~125).

1960년대 초반부터 사회복지제도가 입법화되어 제주지역에서는 법적근거에 기초해서 생활보호 등 공적부조가 시행되었으며, 정부차원의 복지시책은 군 행정조직에서 추진되고 있었다(북제주군, 2006: 1173).

이처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시기에 맥그린치 신부가 전개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Rothman 모델, Taylor & Roberts 모델, Weil & Gamble 모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유형의 성격과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Rothman 모델의 적용과 내용

Rothman은 지역사회개발 모델,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이 상호 중

복되고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① 지역사회개발<sup>30)</sup>의 성격과 실천가의 역할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농촌의 인적·물적 및 기타 제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농촌 지도교육, 사회적 개선, 지역조직체의 육성,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역사회개발의 성격이 나타난다.

첫째,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근대적인 생활습관과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상부상조를 통한 자조자립, 신뢰와 협동단결의 풍토조성, 소액저축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제주도 한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표를 맞추었다. 그리고, 영농개선에 따른 자원 부족과 기반시설 미비, 기술 부족으로 빈곤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궁극적 목표와 함께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제주도에 와서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찾았죠.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정을 변화시켜야 했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3.12.8).**

둘째, 맥그린치 신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의논하였다. 이러한 결과 4H클럽 조직을 시발점으로 직조(수직물)강습소, 성 이시들 중앙실습목장, 한림신용협동조합, 성 이시들 농촌산업개발협회, 성 이시들 의원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 관련부처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목초지개발 연구를 시행하였고, 자발성이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의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제주도 축산행정당국과 제휴하여 개척단지조성에 따른 기술교육 지원 및

30) 1950년대 이후 국제연합에서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낙후지역에 적극 권장한 사업이 지역사회개발이었다. 우리나라도 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개발이 이루어졌다(마은진, 2013: 33 재인용).

조성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맥그린치 신부는 권력구조를 지역사회복지의 목적을 위해서 동참세력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 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수혜집단은 제주도 한림지역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전 지역사회를 수혜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개척농가·주축단지·양잠단지·양돈협업농가 조성등은 제주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축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축산기술지도요원 파견을 요청하여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에 기술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성장과 변화를 이끌었고, 지역사회 임파워먼트<sup>31)</sup>를 유도하였다.

한편, 지역사회개발은 변동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 계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물질문화와 적응문화와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와 부적응을 극복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이택룡 외, 1995: 84).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롭고 진보된 생활양식에 맞는 시설(교육 훈련시설, 의료시설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문화 생활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개척자, 촉매자, 안내자,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하였다.

먼저 공공부문이나 민간에서 아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곳에 먼저 대응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지역주민의 삶의 의미를 살피 사후적이고 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복지차원에서 지역사회의 빈곤, 교육, 실업, 질병문제 등에 접근하였다.

또한 촉매자로서 지역주민이 어떤 변화 노력이 자발적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하였다. 단순한 사례지만 가정에서 인분과 구정물로 돼지를 키우는 풍습은 조상대대로 동일한 생활양식으로 살아왔고 마을주민 대부분이 같은 형태로 살고 있기

31)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내외부의 다양한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통제력을 발휘하고 획득하는 구조, 과정,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이 동네의 주인은 바로 나와 나의 이웃이고 이 동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들이 아닌 바로 우리다”라는 집합적 효능감의 자각이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실천의 요체이다(김옥진·김태연, 2012: 55 재인용).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구조의 변화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가능했다. 따라서 맥그린치 신부는 4-H클럽 활동을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활동 결과를 소득증대로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개발 의지를 고양시켰다.

한편, 안내자의 역할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자원의 연결·통합·조정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목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도하는 능력을 발휘했고, 제주도 한림지역 주민의 잠재능력을 파악하여, 변화후 장래 모습을 예견하였다.

맥그린치 신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 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해 누구보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자신을 지역사회 전체와 동일시하여 주민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외에 사회치료자의 역할도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지역에 대한 역사, 전통과 관습에 대해 숙지하여 주민들이 지닌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주저하지 않고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지지로 긴장을 해소하게 하였다.

무엇보다 맥그린치 신부는 종교에 대하여 포용주의적 접근태도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선교의 수단으로 삼거나, 이를 매개로 교회의 영향력을 확장하지 않았다. 특정이념으로 부터 ‘중립성’과 ‘평등주의’를 강조하여 신분, 지위, 권력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참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에 둔 가톨릭 사회복지의 실천이기도 하다.

## ② 사회계획 및 정책의 성격과 실천가의 역할

사회계획 및 정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여 지역사회사업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특성, 환경, 복지자원, 주민들의 욕구 및 문제 진단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수립한다.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사회계획 및 정책 모델 일부만 적용되는 것은 전문가의 역량등을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강한 힘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힘의 내적형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서 아래와 같은 사회계획 및 정책의 성격이 나타난다.

첫째,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도 한림지역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 축산업에 관한 전문 교육문제, 개척단지 조성에 따른 자금 및 기술교육 문제, 지역주민의 의료환경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변화의 매개체로 영향력을 가진 중앙정부와 제주도 축산행정당국, 의료복지사업 전문 수도회를 참여시켰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복지의 연대적 특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원리인 연대성의 원리와의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지역주민과 더불어 참여한 변화의 매개체들을 사업부문별 사업주체별(책임주체, 공동참여주체, 협력주체)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여 실천지향적이며 지역밀착형 계획을 추진하는데 든든한 협력자로 인식하였다.

셋째, 맥그린치 신부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사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1952년 정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4H운동을 채택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마을마다 4H클럽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이시기 맥그린치 신부는 1957년 제주도에 제일 먼저 도입하여 초창기 운동을 주도하였고 도내 곳곳의 4H클럽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60년대 근대화 운동이 한창일 무렵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초지개간과 목초개발에 맥그린치 신부가 참여하여 제주지역의 영농개선과 축산업을 발달을 이끌며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계획 및 정책과정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전문가,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전문가의 역할로 제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보유자원등을 알아내어 개발사업을 실시할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사업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그 예로 한림항에서 이시들 목장까지 진입도로(14km)를 포장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기 및 전화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공조로 이루어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영향력 있는 공식조직을 참여시킨 것이다. 맥그린치 신부는 계획대로 사업 수행여부와 평가를 하고 모든 사업과정과 사업목표를 달성·적합·적용 가능한 것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에 관한 조언과 평가를 하였던 점은 지역사회복지가 지닌 서비스공급자 측면의 종합적 특성을 구현하였다.

관리자의 역할로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의 일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중심을 둔 가톨릭 사회복지의 실천이기도 하다.

## (2) Taylor & Roberts 모델 적용과 내용

Taylor & Roberts 모델은 지역사회개발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계획모델, 지역사회연계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지역사회개발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은 Rothman의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비슷한 유형으로 대상자에게 거의 대부분 결정권한이 있는 대상자 중심 모델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성장하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으로 실천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에 대한 장기적인 구호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변화에 대한 참여의지를 실종시켜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개발 의미를 힘들게 할 수가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원리인 보조성의 원리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다.

지역 주민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나 먹을거리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3.12.8).

### (3) Weil & Gamble 모델 적용과 내용

Weil & Gamble 모델은 8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사례에서는 지리적 지역사회조직모델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①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모델의 성격과 실천가의 역할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모델에서는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지역과 근린지역에서 조직화를 통해 능력향상을 강조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4H클럽과 성 이시들 농촌산업 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독자적인 조직활동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가 지닌 환경과 실정에 맞는 조직화의 전형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이임과 자주관리를 했다. 이러한 조직활동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장을 의미하고, 참여를 통해 지역에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과업들을 성취할 수 있었다.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역의 토착민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서구식의 그리스도교 삶과 방식을 강요하여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맥그린치 신부가 지역주민을 조직화 하는 과정에서 자칫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과 전문가주의에 바탕을 두어 자신이 가진 전문적 지식과 이론, 경험을 총동원 하였다면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를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부조리의 기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문화, 역사적 경험, 종교, 가난, 고통, 무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으로 지역주민과도 원만한 관계형성을 하였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다.

바로 직접 한국에 오면서 한국말 배울 시간이 없었고 신자들 상대하면서 말 배웠지. 농담하는거, 장난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신부님은 직접 생활 속에 뛰어들면

서 부딪쳤지. 주민들은 대단한 분으로 우러러 봤지. 엘리트로 최고 고등교육을 받은 분이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됐지. 마을 일까지 다 통솔할 정도였고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많이 해서 신부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잘 따라주고 순종했지. 깡패들도 꼼짝 못했는데 뭐. 그 당시는. 사람들도 잘 따라줬고, 잘 인도해 주셨고, 또 가르침도 참됐고(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인터뷰, 2014.6.12).

외국인이 제주에 와서 선교하면서 땅을 사고 사업을 하니까 금약이나 가까운데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신부님 생활방식을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들 위해 일한다는 거 알고 인정했죠(지역주민 김○○, 남, 신자, 2014.6.11).

고생 많이 했지. 집하나 없고, 돌담만 있고 완전 풀밭 허허벌판. 일년내내 24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으로 일했지(지역주민 김○○, 남, 신자, 2014.6.11)

이처럼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의 리더를 발굴하고 양성했으며, 지역사회 내외의 자원을 개발하는 조직가의 역할을 하였다.

## ②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모델의 성격과 실천가의 역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모델은 Rothman의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Taylor & Roberts 모델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유사하게 그 성격과 실천가의 역할이 나타났다. 이 모델을 적용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에서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내적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의 투자를 통한 외부적 지원도 강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 자원 개발시 통역가, 협상가의 역할을 하였다.

그 예는 가톨릭 구제회의 보증으로 사료곡물을 원조받기 위한 과정과 외국정부와 원조단체의 지원을 받기위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 대외원조국(USOM) 회의에 참석했을 때 통역관이 옥수수를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로 통역

하는 과정을 지적하는 아래의 인용문과 인터뷰에서 잘 나타난다.

당신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이 보기에 이 신부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신부가 되지 않고 목장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을 포함하는 건 양반이 할 일이 아닙니다(박재형, 2006: 133).

사회사업에 필요한 돈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골롬반회에서 지원도 있었고, 선교잡지를 통해서도 후원금 모집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후원 많았죠. 미국 가톨릭 구제회에서 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독일 미제레오르도 있었고. [절차도] 복잡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하는 것인데 임 신부님도 그렇게 했죠(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전○○신부 인터뷰, 2014.5.15)

## 2)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의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관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다양한 역할을 세가지 지역사회개발가-지역사회사업가-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 (1) 지역사회개발가

맥그린치 신부가 부임할 당시 제주 지역사회는 한국전쟁등으로 심각한 물자부족을 겪고 있었고, 기반시설을 잃어 지역주민들은 자립능력이 상실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그리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개인 및 조직의 지도력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현대적 영농교육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였고 품종개량등 혁신적 농업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목장에서 어미 돼지 많이 기르도록 하고, 그 새끼들 젖뵈 다음 사업관계된 농민들에게 20마리씩 외상으로 분양하는 비육사업했어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옥수수사료 받아가지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넣은 배합사료 공장 만들었어요. 제주도 첫 공장이었어요. 그 당시 육지도 배합사료 공장 없었어요(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이러한 지역사회개발 과정에는 토지이탈 소작농·영세농민 등 취약계층이 그에 따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배제되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운영은 종교에 대해서 포용주의적 접근태도로 특정부문에 치우치지 않았다. 개발이익은 축산기술 지원과 성 이시돌의원 운영비 지원 및 최신식 가공시설 구입 자금등으로 사용되었다. 즉, 지역개발의 결과를 분배하면서 지역성장을 함께 이루었다.

특히 맥그린치 신부는 60년동안 직접 지역의 주민들의 삶 안에 들어가서 지역사회개발가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였다. 지역주민이 경험하는 무지와 무력감, 특히 청년들에게 교육을 통해 훈련시키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에 적합한 양돈, 면양, 낙농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생활을 하였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수행하는 지역사회개발가로서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 이익분배는 지역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때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2) 지역사회사업가

사회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활동영역으로 ‘전문성’은 사회사업의 중심적인 구성요소이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원조활동들은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사후적이고 치료적인 서비스 및 급여를 제공한다.

맥그린치 신부는 제주 지역사회가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 만연된 빈곤과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보다는 먼저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사람 고집 아일랜드 사람과 비슷합니다. 제주 사람 고집 있으니까 파이팅 하는 정신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도에서] 배운 것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집 없으면 도저히 행동 못하거든요. 그것 [고집] 다 나쁜 것 아닙니다(한림화·양영자·오성찬, 2002: 165).

위와 같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는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파악하고 동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사회조직의 목표운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양과 돼지를 구입할 돈이 없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통해 후원물품을 요청하였고, 고향에 직접 가서 미사 집전을 하면서 기금을 모았다. 그리고 미국 농림성에 지원 요청을 하였고, 1960년 5월부터 1961년 8월까지 휴가를 얻어 유럽 여러 나라 방문을 통해 미국 가톨릭 구제회(C.R.S)와 독일 주교회의 해외 원조위원회인 미제레오르(Misereor)로부터 후원과 원조를 약속 받았다(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 2001: 207). 이 과정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모금방법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다.

돈은 언제든지 모자랐어요.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미국에 사는 아일랜드 교포들에게, 뉴욕하고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제가 아일랜드에서 한국에 오다가 미국 거쳐서 왔는데 그 친구들 만났지. 그들에게 편지 보내서 좀 도와달라했죠. 그래서 5달러씩, 10달러씩 조금씩 모금했죠. 사업 시작하니까 이 돈으로 땅을 값싸게 살 수 있었어요. 농민들은 중산간 땅 다 쓸모없는 줄 알았지만, 그 땅에서 돼지 키우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사업 확장했죠.

가족들이 보내준 돈으로 자전거 휠로 실 뽑는 기계 만들어서 소규모로 한림수직 사업 시작하고 있었는데,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미제레오르에 도움 요청했죠. 미제레오르와 같은 단체는 아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자체부담금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아무 조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돈 절대로 안주죠.

홍콩에 살고있던 대표신부님이 사업 확인하기 위해 한림성당 강당에서 일하는 거 보고 갔죠. 그 다음 전문가들과 미제레오르내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청서 검토해서 오케이했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이외에 맥그린치 신부가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는데 아일랜드에서 보아온 축산에 대한 관심과 축산사업을 통한 소득증대의 경험<sup>32)</sup>이 적극 활용되었다. 본인의 능력과 의욕이라는 내적자원도 활용되었다는 것을 맥그린치 신부와 마을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된다.

저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아일랜드 수의사는 의사뿐 아니라 농가방문하면서 소득증대 시키는 방법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선스 주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수년간 방학때마다 아일랜드에 있는 농가 방문하면서 농민들 지도하는거 직접 보고, 들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얻어서 사회사업 할 수 있었죠(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4.6.12).

당시 독특한 성향과 카리스마가 있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갔지. 자기 주장이 강한 양반이지. 이 상태 [제주의 상황] 를 보고 자기 본분이 선교사니까 선교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 해야겠다 그런면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달랐지. 그 양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지(지역주민 김○○, 남, 신자, 2014.6.11).

위와 같이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단순한 자선이나 박애사업과는 달리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치·원리·기술등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고, 지역주민 개인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맥그린치 신부의 아버지는 농민지도자를 겸한 의사이고 형은 의사, 숙부가 목장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 소득 증대를 하는 방법인 축산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한림화·양영자·오성찬, 2002: 168).



## (2)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sup>33)</sup>

제주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상태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상태를 포함하는 등 욕구가 다양해져 사회복지서비스의 종합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였다.

이 때 맥그린치 신부는 동일한 이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의 연대활동으로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였다. 중앙정부와 제주도 축산행정당국, 전문수도회등과의 자원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망을 개발하였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맥그린치 신부와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한림성당 강당에서 엉터리로 실을 뽑다가 고향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스웨터 견본과 실 뽑는 물레, 옷감 짜는 도구를 갖추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목포에서 병원 사목하고 있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 수녀회에 도움 요청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녀님들 매일 환자들만 돌봐서 힘들테니 다른 업무도 바뀌가며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수녀님을 위해서도 좋을테니 제주에 오셔서 수직사업 하는거 도와 달라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녀회 입회 전에 수직공장에서 일하셨던 아일랜드 수녀님들 모셔왔고 기술 가르치게 했어요.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맥그린치 신부 인터뷰, 2013.12.8.).

그리고, 각 기관은 개별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지역사회복지 증진이라는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한정된 자원내에서 서비스의 효과를 최대화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원조하였다. 자원연계로 지역주민은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수행하는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은

33) 사례관리는 전통적 사회복지실천 방법의 모든 측면을 통합한 것으로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고 포괄적 서비스 계획을 개발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점검한다(최옥채, 2013: 205).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의 중복·누락을 최소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와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개별 기관중심의 사례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보호 체계의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 수 있어야 한다.

##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우선,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 주민 의식개선과 농촌생활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제주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소득기반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수준을 향상시켰다.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고 비계획적인 생활방식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성 이시돌 의원을 개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성 이시돌 농촌산업 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사회복지 성립의 기반이므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유형과 성격,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othman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이 상호 중복되고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개발 모델의 성격은 지역주민들의 의식성장과 변화를 목적으로 자원 부족과 기술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의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의논하면서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유도한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개척자, 촉매자, 안내자, 사회치료자의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의 예방적 특성을 구현하였다.

사회계획 및 정책모델의 성격은 지역의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제주도 축산행정당국, 전문 수도권회(성 골롬반 외방선교 수녀회)를 참여시켜 실천지향적이며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추진하였고, 특히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병행하여 수립한 사회계획이 제주지역 영농개선과 축산업 발달에 기여한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계획 및 정책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전문가,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복지가 지닌 서비스공급자 측면의 종합적 특성을 구현하였다.

둘째, Taylor & Roberts 모델을 적용했을 때 Rothman 모델의 지역사회개발모델과 비슷한 유형인 지역사회개발모델이 적용되었다. 지역사회개발의 성격은 장

기적인 구호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자생력과 참여의지를 실종시켜 의존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중심의 결정권한 부여에 핵심을 두었던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셋째, Weil & Gamble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모델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지리적 지역사회조직 모델의 성격은 4H클럽 조직과 성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이임과 자주관리를 통해 조직화 작업에 개입하였던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조직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전문가주의에서 벗어나 제주지역 주민들의 문화, 역사적 경험, 종교, 고통, 무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주민참여, 지역사회의 리더 발굴 및 양성, 지역사회 내외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조직가의 역할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개발 모델의 성격으로는 Rothman의 지역사회개발 모델과 Taylor & Roberts 모델의 지역사회개발모델 성격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상호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가로서 맥그린치 신부는 지역주민의 내적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의 투자를 통한 외부적 지원도 강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 자원 개발시 통역가, 협상가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 관점에서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다양한 역할을 3가지 지역사회개발가-지역사회사업가-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수행하는 지역사회개발가로서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지역개발 이익분배는 지역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때 지역사회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사업가로서의 역할은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치·원리·기술 등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고, 지역주민

개인의 존엄성과 개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원연계형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와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과적인 연계와 조정을 하며, 개별 기관중심의 사례관리의 틀에서 벗어나 협력기관들의 공동개입과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사회보호 체계의 구조적 변화까지 이끌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관점에서 살펴본 맥그린치 신부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제주지역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요구되어지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과 그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지역사회개발과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는 아일랜드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다. 협력국가들은 제주의 사회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도적 차원, 무역증진 등 경제적 차원, 외교적 차원 및 국제질서를 위한 정치적 고려 등 원조목적이 다양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국가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 맥그린치 신부의 역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참고문헌 >

- 강세현(2000), 「제주의 사회복지, 그 실태와 문제점」, 제주도연구, 제17집.
- 김옥진·김태연(2013), 「지역사회개발과 디스임파워먼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No.46.
- 김범수·신원우(2006),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 김태성·홍선미·조성은(2012),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 골롬반회 한국지부(1992), 「골롬반회 회헌 및 지침」.
- 권복순(2003), 「사회복지실천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실천방안의 모색」, 가톨릭사상, Vol 29.
- 남진열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 노길명(1999), 「사회 문제에 대한 현대 가톨릭 교회의 인식과 대응」, 한국사회복지, Vol 4.
- 류종훈(2007),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마은진(2013), 「지역사회개발은 통한 전문인 선교 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문수(2002), 「가톨릭 사회복지와 한국의 근대화」, 가톨릭 사회과학연구, Vol.14.
- 박문수(2005), 「가톨릭교회와 근대적 사회사업의 도입과 발전」, 가톨릭 사회과학연구, Vol.17.
- 박문수(2006),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하)》, 가톨릭출판사.
- 박문수(2013), 「광복 후 천주교의 민족사 참여와 사회영성의 성장」, 교회사 연구 제42집.
- 박재형(2006),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신부》, 가톨릭출판사.
- 박태영(2007),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북제주군(2006), 《북제주군지 <상>》, 《북제주군지 <하>》
- 성골롬반외방선교회(2012), 「신부님! 돼지가 없어졌어요」, 골롬반선교 가을호.
- 심홍보(1998),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철(1990),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영철(2005), 「지역개발 유형분류와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 2005.
- 양영철(2013), 《맥그린치 신부의 제주사랑과 열매》, 하나출판.
- 양창조(2011), 《임 맥그린치 신부의 삶과 그의 선교에 관한 연구》,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미경·김규리(2006), 「제주도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마을공동체의 변동」, 호남문화연구, Vol.-No. 41.
- 옥현진(2007), 「머나먼 동쪽을 찾아온 선교사들: 1945년 해방까지 광주교구의 골롬반 선교회」, 교회사연구, Vol-No. 29.
- 유영준(2012),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 비교》,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37호.
- 이택룡·노무지(2005),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 장인협·이혜경·오정수(2001),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무성(1997),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무성(1998),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의 발전과 함의」,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No. 6.
- 제주선교 100주년기념 사업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 제주상공회의소(2000), 《濟州商議六十年年史》.
- 최일섭·류진석(2002),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옥채(2013),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최진일(2003), 《성골롬반외방선교회의 한국 선교 연구-문화적 유사성 인식과 선교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무(1995),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사회복지 활동의 사목적 전망》,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4호.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08), 「가톨릭 사회복지 근대화 II-해방후 해외원조기관 및 단체의 지원활동(1): 미국 가톨릭 구제회」, 가톨릭 사회복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09), 「가톨릭 사회복지 근대화 IV-  
해방후 해외원조기관 및 단체의 지원활동(3): 독일 미제레오르」, 가톨릭  
사회복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2010), 「가톨릭 사회복지 운영지표  
개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11),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5), 「허허벌판을 자립의 터전으로」 경향잡지 3월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31), 비오 12세 회칙, 「사십주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67), 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비오 12세 회칙,  
「현대세계의 사목현장」.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1994), 「교회와 사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5), 「간추린 사회 교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1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판.
- 한림읍(1999), 《한림읍지》.
- 한림화·양영자·오성찬(2002), 《북제주서부 핵심마을 한림리》, 반석.
- B.세퍼·C.호레이시·G.호레이시(2001),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ABSTRACT>

## **A Study on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in Jeju**

Eun-jin Kw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 Gwan-hun Jin)

This study aims is analyzing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in Jeju and exploring the practical significance and to present a practical direction to facilitate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of Community Welfare

Its major approach includes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for oral life history. and the strategic place in this study is Hallim, Jeju Island and the time period is between the 1950s and the 1970s.

Following results are the types entirely derived from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for practical Community Welfare models.

First, the application of Rothman Model resulted in overlapped and blended aspects of community development models and social planning and policy models.

Second, based on Taylor & Roberts Model, a Community development model similar to the one under Rothman Model was applied.

Third, the application of Weil & Gamble Model resulted in a mixture of neighborhood and community organizing model and community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it is significant to classify the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into various roles of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into three types, Community Welfare developer, Community Welfare entrepreneur, and resource-connecting case manager.

The process of Community Welfare activities of Father Mcglinchey contai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Ireland.

Those countries may have had diverse purposes of international aid and the roles of Father Mcglinchey as a mediator to connect these countries shall provide many important implication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derive Jeju-like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s when aiding other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Father Mcglinchey.

Keyword: Mcglinchey, Community Welfare,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Community Welfare Practitioners